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193-202,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193

대학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 개발 기초연구

김영준[1], 강경숙[2*]
[1]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박사, [2]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A Fundamental Study of Convergenced Curricular-Noncurricular System Development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Young-Jun Kim[1], Kyung-Sook Kang[2*]
[1]Ph.D., College of PARAMITA,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2]Ph.D., Department 0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필수 이수 대상 영역으로 고려되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소고 형식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절차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학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 개발을 위해 기초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로써 '비교과 기초교육으로써의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 내용적 기반 마련', '인성교육 정규 교과 내용적 기반 연계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 구성',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 '인성 함양 역량 구축 및 유기적 범주화', '사후 연계학습 관리'가 고찰되었다. 끝으로, 이상에서 고찰된 제반 내용이 일선 대학 현장의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수반 조건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 인성교육, 교과, 비교과, 융합체계, 기초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personality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a requirement in university education and searched the components to be considered to develop an integrated curricular-noncurricular system to promote the personality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method of study was used to explore relevant prior studies in the form of appeal. The basic components of the integrated curricular-noncurricular system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are: 'fundamental contents of regular courses of personality education as a fundamental noncurricular program', 'noncurricular areas and hands-on topics related to the contents of regular courses of personality education', 'configuration of integrated curricular-noncurricular system of personality education', 'capacities for personality education and organic categorization', and 'management of follow-up learning'. Finally, the conclusions discussed above were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 leader that could be realized on the basis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curriculum at the university site.

Key Words : University, Personality Education, Curricular, Noncurricular, Convergenced System, Fundamental Study

1. 서론

일선 대학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기반의 선진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수요자의 위치에 있는 재학생의 입장에서도 대학 졸업 후 사회 맞춤형 인재로 지역에 진출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 이런 흐름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 편성에 있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ang (grace86@wku.ac.kr)
Received September 28, 2018 Revised November 1,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어 필수 이수 대상 과목으로 정규화하려는 노력을 거듭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공식화될 수 있도록 건학이념이나 추구하는 교육 목표 등에 의거해 인성 함양 덕목을 다중(multiple) 차원으로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인성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학술적인 동향에 있어 대학 교육과정상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는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기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써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인성교육의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 간의 상호 융합 구성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이 크게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1,3]. 여기서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 간의 융합은 학습 대상이 인성 함양의 덕목 등과 관련된 제반 지식과 기술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천적인 수준에서 역시 두루 습득 및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며, 학습 대상이 대학교육과정 전체 기간 동안 인성교육에 대해 일회적으로 접근하는 제한점을 최소화시켜 주는 데 큰 가치를 가진다[4]. 특별히, 각 대학별 현장에서 인성교육 관련 정규 교과목은 전 재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필수)교양 교육과정 내의 영역 안에 편성된 일례가 많기 때문에 저학년 중심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재학생이 1학년 과정 이후 고학년의 단계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1,2]. 단적인 예로, 공통교양 단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은 1~2학점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론과 실천 사례를 병행하여 수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단편적 경향의 수업 이수 시간으로 인해 이론적인 차원에서 역시 인성교육의 전문화된 변별 내용을 다루는 데 한계를 가진다[5]. 이런 관점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은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공통교양 등의 필수 이수 단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이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비교과와의 융합이 활발히 반영되는 것이 주된 방안이긴 하나, 위의 절차에 앞서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에 대한 표면적인 이수 절차와 교과 내용적 기반이 타당하게 마련되는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1]. 왜냐하면, 아무리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이 활발히 추진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구성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라면 비교과와 상호 융합될 수 있는 타당성과 수월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4]. 표면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적 구성요소와 융합된 관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이 마련되는 데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본질적으로 교과와 비교과가 포괄적인 수준에서 인성교육의 틀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질 뿐 내용적인 기반 차원에선 상호간의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5]. 그러므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행정적인 수준의 학사제도에 대한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교과의 내용 기반을 얼마나 인성교육의 체계화 관점에서 질 높게 구성하는가의 차원과 더욱 밀접하다고 하겠다[1].

각 대학에서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데 있어 비교과와의 융합체계를 사전에 중점을 둔다면 교과목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질적 타당성은 크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이 비교과와의 융합체계를 고려하는 측면은 대학 수준에서 구축해야 할 인성교육의 기초 이론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3]. 즉,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교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운영 형태에 앞서 내용적 맥락을 살펴보면 인문학적 분야의 지식세계를 탐색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런 일례는 각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국문학', '철학', '윤리학', '종교학' 등의 학문적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관련된 내용을 학습 대상에게 강조하는 경향에서 기인되며, 또한 인성 함양을 위한 덕목(예: 공감, 나눔, 보람, 지혜, 자비, 정진 등) 자체의 기본 내용을 습득하는 데 주된 비중을 둠으로써 철학이나 종교학 등의 인문학적 학문 분야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된다. 여기서 인성교육 교과가 인성 함양 덕목의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학습 대상이 인성 함양 덕목에 대한 기본 정의 내용을 체험 방식으로 수행해 보는 절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인성 함양 덕목을 학습 대상이 개별적인 관심 주제나 실생활에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수준의 수업으로는 이어지기 못한 경향으로 인해 사실상 대학 차원의 인성교육에 대한 적절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3-5]. 이러한 일례는 대학 차원의 인성교육과 이전 학령

기 수준의 인성교육 간의 상호 변별성을 확보하는 데 제한점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인성교육의 성격을 함양 덕목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하거나 관련 사례를 일회적으로 경험하여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인간 성품에 대한 적절성을 조망하는 한계 역시 초래한다고 하겠다[6,7]. 종합적으로, 인성교육 교과와 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 적용을 강조하는 비교과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인성교육 교과가 기초 이론 수준에서 구축해야 할 구성요소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위의 인성교육 교과에 대한 기초 이론이 인접 학문 분야(예: '철학' 등)와 중복되거나 인성 함양 덕목 중심의 체험활동 및 도덕교육 등으로 종결되는 현상을 최소화시켜 준다. 이에, 대학 수준에서 인성교육 교과목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할 시 이전 학령기 중심의 인성교육과 상호간 변별적이어야 하며, 인성교육의 본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비롯한 실용성 중심의 심화 발전된 학습 내용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려는 인성교육 교과 차원 자체적으로 보다는 비교과와의 융합체계 차원에 의해 수월히 이행될 수 있고, 비교과를 기반으로 하여 교과의 성과 범주(예: 이론 습득, 사례 경험, 사회 기여, 행복 만족 등)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강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비교과의 활용 관점에서 인성교육 교과에 대한 내용적 기반이 타당하게 마련되는 측면은 교과와 비교과 간 학습과정을 단계별 차원에서 '기초'와 '심화'로 상호 분류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1]. 여기서 비교과는 단순히 교과에 대한 활동 중심의 실천적인 절차를 반영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심화'의 수준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가 통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실천 소재로 인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 대학별로 교과와 융합 구성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교과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나 대개 실천 소재를 보면 상호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일례가 많다[4]. 각 대학의 여건이나 강점적인 인프라 등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비교과에 대한 학습 대상의 수요는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과에 대한 학습 대상의 수요는 전공 직무능력개발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포함하며, 이런 실천 소재는 인성교육 교과에서 다루는 제반 이론 및 실천 사례와 상호간 융합화되어 보다 심화·발전적으로 응용된 인성교육의 학습 내용 및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5]. 이를 감안해 볼 때,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대학교육과정 안에 편성된 인성교육 전반의 질을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관리하는 일환으로 그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기초연구의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에서 전술한 부분을 통하여 인성교육 교과와 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인성교육 분야 연구 동향을 검토해 보면 인성교육 교과와 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문헌은 거의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1-7]. 대개 인성교육 교과 운영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비교과 역시 그 실정 및 향방을 제시한 일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대학 수준 및 고유한 차원에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 기반이 어떤 틀로 마련되어야 하는가의 운영 모델이나 비교과와의 융합체계 모델 역시 거의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성교육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학 관점에서 조망되어 왔을 뿐 아직까지 '학(學)'의 수준으로 정립되지 못한 일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고, 일선 대학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체제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일회적인 덕목 체험 및 도덕교육 등의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2-5]. 현행의 연구 실정을 상기하여 볼 때 역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탐색해 보는 연구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이란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일선 대학 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적인 기반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참조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궁극적으론 대학 차원의 인성교육이 이전의 학령기 인성교육 등과 변별적으로 전문화될 수 있는 방법론적 측면을 시사할 것으로 본다.

2. 본론

2.1 비교과 기초교육으로써의 인성교육 정규교과 내용적 기반 마련

각 대학별로 공통교양 교육과정 단위 등을 통해 필수 이수체제를 유지하는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교과와의 융합체계를 고려하는 만큼 비교과의 기초교육 수준 및 범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1,2]. 인성교육 정규 교과와의 융합체계 가운데 비교과가 갖는 가치가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에 있다면, 비교과는 학습 대상이 인성교육 정규 교과를 기초로 하여 인성교육의 실천을 자기 주도적으로 응용해 보는 실행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8]. 이에,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에 있어 일차적인 이수 절차 대상으로써 고려되는 정규 교과는 비교과와의 융합체계 가운데 기초교육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비교과에 대한 기초교육 차원에서 정규 교과가 내용적 기반으로써 고려해야 할 사안은 먼저 인성교육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정립하는 부분이다[9,10]. 현재까지 인성교육이 '학(學)'의 수준으로 정립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함양 덕목에 의해 인문학적 관점으로 그 학문적 위상과 정체성이 이해되어 가는 측면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10].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단정할 경우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있어 교과가 비교과에 대한 기초교육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 기반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는 교과가 비교과와 달리 이론 중심의 내용 기반에 중점을 둔다고 할지라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상호간의 내용 기반에는 별다른 변별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8,10]. 즉, 학습 대상이 인성 덕목에 대한 이론적 내용 기반의 교과 습득 후 실천 사례 중심의 비교과를 단계적으로 융합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교과 자체의 내용적 기반이 특정 덕목(예: 지혜, 정진, 자비, 공감 등)의 몇 가지를 안내하는 정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성덕목의 실천에 중점을 둔 비교과라 할지라도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체험 형식으로 흘러가기 쉬운 경향을 가진다[5,11]. 따라서 인성교육 교과가 비교과와 융합체계를 구성하기 전에 인성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교과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명확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표면적으로 '인성'과 '교육'을 융합한 차원으로써 교육학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학적 기반 가운데 '인성'에 특수성을 갖춘 분야교육(field education)으로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인성교육은 융복합 차원에서 인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 융합적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학적 관점에 따라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이 정립된다고 볼 수 있다[1-3,12]. 인성교육이 교육학에 기반을 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만, 먼저 대학 차원에서 이전의 학령기 차원과 상호 변별하여 학습 대상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있다. 학령기 중심의 인성교육은 함양 덕목의 사례를 체험해 보는 정도이거나 교과 지식의 차원에서 인문학적 내용이나 윤리・철학적 내용을 이론 수준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어떤 학문적 배경과 구조 가운데 실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명확히 습득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성 함양의 덕목이 교육학적인 관점에 따라 어떤 가치와 의의(예: 자기이해, 타인이해, 공익이해 등)를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의 학습 동기와 성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10,11].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인성교육이 교육학적 기반에 중점을 둠으로 인해 대학 차원의 인성교육이 고유하게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해 볼 수 있으며, 학습 대상이 인성덕목의 함양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일부 특정한 덕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계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12].

이렇게 인성 함양 덕목을 교육학적 관점(예: 자기이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음에 따라서 교과 수업에서 다룬 한 가지 이상의 인성 함양 덕목을 상호 융합하여 실생활 중심의 인성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10,11]. 이와 관련된 실생활 중심의 인성교육 역량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갈등관리(문제해결)', '직업윤리', '행복한 미래 설계'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며[1-5], 또한 이런 실생활 중심의 인성교육 역량은 인성 함양 덕목이 각각 갖는 정의 뿐 아니라 배경적 가치와 활용 의의를 사전적으로 습득한 이후 각 인성 함양 덕목별 지식을 통합 활용하려는 시도를 전개할 때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13]. 사실상, 위의 인성교육 역량을 교과 수업 안에서 내용적 기반으로 다루는 것은 학습 대상이 비교과의 수준에서 활동중심의 인성 실천을 심화적・주도적으로 적용 및 응용하기 전에 기초학습(basic learning)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기능을 한다. 만약,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인성 함양 덕목 자체만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면, 교과와 비교과 간 융합은 형식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의 입장으로 기대되긴 어려울 것이다[11,13].

이상의 측면을 통해, 결국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일선 대학 현장에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을 얼마나 질적으로 타당하게 마련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교육학적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비교과의 교육 내용을 융합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기초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이를 실제로 교과 수업의 내용 기반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별로 인성교육 정규 교과와 관련해 구축하고 있는 수업 주차별 내용적 기반을 종합 분석하여 비교과의 융합체계 관점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2 인성교육 정규 교과 내용적 기반 연계 비교 과 영역 및 실천 소재 구성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내용 기반 차원에서 실질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이 실제 실시되기 전에 비교과 영역이 교과의 내용적 기반과 상호 융합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4][11][14].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은 인성 함양 덕목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내용이 두루 포함되어 있기에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의 영역은 인성 함양 덕목에 기반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1][5-7][15]. 이를테면, 인성교육 교과 수업에서 적용하는 인성 함양 덕목이 세 가지의 차원(예: 지혜, 자비, 정진)이라면 비교과의 영역을 '지혜', '자비', '정진'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세 가지의 덕목을 합친 '융합'의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융합' 영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 수업의 내용에서 각 인성 덕목별 융합에 의해 '의사소통', '갈등관리(문제해결)' 등의 인성 역량을 연계적으로 함양하는 차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며, 비교과 자체적으로도 각 인성 덕목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흐름을 반영하려는 데 가치가 있다[5]. 단적인 예로, 교과의 수업에서 세 가지 차원의 인성 함양 덕목을 '지혜' '자비', '정진'의 순으로 단계별 학습을 하는 경우라면 비교과 역시 이런 학습 프로세스를 반영하게 되며, 교과와 비교과에서 모두 '융합'의 영역은 최종적인 절차로써 반영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인성교육 정규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의해 비교과 영역이 구성된 이후에는 비교과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실천 소재 역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정규 교과와의 융합체계를 형성해야 할 비교과에서 이런 실천 소재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입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비교과가 활동 중심의 인성 실천 사례를 활발하게 다루는 데 가치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실천 사례의 내용 맥락을 안내하고 결정짓는 소재가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정규 교과 수업의 내용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조망해 보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과가 인성교육의 관점을 비롯해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기능요소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관점을 반영하는 절차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비교과의 기능요소로는 '취업・진로설계(상담 및 자격 취득 관련)', '학습법 지원 및 학습부진 학업 성취도 향상', '(전공 직무) 지역 대상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외국어(글로벌) 역량 함양', '학생 상담(자기심리, 자기관리, 대인관계 등)', '의사소통 능력 증진', '논리논술 및 글쓰기 능력 강화', '학과 역량 강화(자율)' 등으로 구성되며, 위 기능요소에 대해 인성교육 정규 교과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연계하는 절차 사례가 고려되어야 한다[12]. 구체적으로, 학습 대상이 정규 교과의 수업 내용이 비교과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융합 연결되는 흐름을 이해하면서 각 영역별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비교과의 다양한 기능요소(예: '취업・진로설계' 등)와 역시 상호간 융합되어 어떤 내용과 방법의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실행될 수 있는가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15-16].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있어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비교과의 본래 기능요소를 인성교육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 역시 아울러 중요시되어야 하겠다[5,10,13]. 덧붙여서, 대학에서 현행에 확보하고 있는 비교과의 기능요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편화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는 기능요소 역시 활발히 마련해 나가는 노력 역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있어서 학습 대상이 정규 교과 수업을 이수한 후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하는 절차적 기반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12-15].

2.3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

인성교육 정규 교과에 대한 수업 내용요소들과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를 최종 선정하였을 경우 이런 절차를 융합화할 수 있는 양식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1,17]. 이와 관련된 양식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 교과의 수업 내용요소 한 가지와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별 한 가지를 상호간 맵핑하는 '단일 융합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18]. 둘째, 교과의 수업 내용요소 한 가지 이상과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별 한 가지 이상을 상호간 맵핑하는 '다중 융합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18,19].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융합체계는 학습 대상의 교육 수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순차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해 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5-8].

인성교육 교과의 수업 내용에서 다루는 지식 및 기술은 기계적이거나 정통적인 이론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과 연계 가능한 유용성을 중요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의 영역 및 실천 소재와 다양한 목적과 의도, 기대성과 차원에서 융합화될 수 있다[1].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처음으로 실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일 통합체계'가 수월히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 차원에서 비교과의 각 실천요소(예: '취업・진로설계' 등)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일 경우에도 '단일 융합체계'는 크게 실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장기간 '단일 융합체계' 수준으로 머물게 될 경우 교과의 수업 내용이 비교과의 활동 내용으로 그대로 반복 재현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학이 현행에 구축하고 있는 비교과의 실천 소재와 인성교육의 관점이 상호간 병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성교육의 관점과 내용은 잠정적인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8-10]. 그리고 다년(多年)간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매번 동일하고 유사한 융합 양식체계가 형성될 소지가 많아 대학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교과-비교과 간 융합화에 대한 필요성과 실질적인 수요를 강조하는 데 명분이 미흡할 수 있다[11].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경우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는 '단일 융합체계'를 계속 반복 활용하는 사례를 경계해야 하며, '단일 융합체계'에서 '다중 융합체계'의 수준으로 전환, 심화 및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은 '단일 융합체계'와 '다중 융합체계'의 각 방향성을 조망하는 차원 뿐 아니라 교과-비교과 간 융합화에 대한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주된 가치를 가진다[1,13-16]. 이를 감안하여 볼 때 학습 대상이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을 비교과의 차원과 융합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 및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로 풀이하고 논리화시키는 입장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 볼 수 있으며, 학습 대상의 인성교육에 대한 함양 정도나 반성적 성찰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융합체계가 상대적인 범주에서 연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판단해 볼 수 있다[14,15]. 각 학습 대상별로 동일한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과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에 대하여 상호 동일하게 맵핑하였다고 할지라도 맵핑 결과를 어떤 세부 주제와 내용, 절차로 구체화시킬 것인가의 부분은 상호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는 학습 대상의 인성교육에 대한 개별적인 의도 성향을 비롯한 구조화 능력 등을 사정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을 비롯한 이와 융합된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는 인성교육의 실천적 활동을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전개하여 나갈 것인가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선정된 교과 내용과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학습 대상이 별도로 구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절차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대한 실행 가치는 무의미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 관점에 의한 전문화된 비교과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안에서 표면적인 수준으로 인성교육 관점을 지향하게 되는 제한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대학 인성교육에서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단일 융합체계'와 '다중 융합체계' 간 실행 절차와 방법 사례가 제시된 매뉴얼 및 가이드북이 국가 교육 사업 수준에서 개발 및 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자체적인 수준에서 역시 사례집이나 워크북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17]. 종합적으로, 인성교육 정규 교과에 대한 최종 성과는 학습 대상이 교과 수업의 내용과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를 개별 주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경험 및 실천할 수 있는 주도성에서 크게 비롯된

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대상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 대상을 비롯한 대학생활 중 학사상담 결과 등을 체계적인 목록으로 관리하여 이를 '단일 융합체계'나 '다중 융합체계'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절차 방안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4 인성 함양 역량 구축 및 유기적 범주화

학습 대상이 앞의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를 실행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 가치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성 함양 역량이 여러 가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역량을 '인성 역량', '자비실천역량', '성찰과 성장 역량', '성실 역량', '정의 역량', '배려 역량'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거나 인성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일지라도 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함양 역량을 공식적인 지표 관리의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일례를 가진다[1]. 위의 일례에 있어서 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함양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난다[5-7]. 하지만,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위해서는 인성 함양 역량이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을 기초적으로 이끄는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을 통해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교과의 수업 내용으로 포함된 특정한 덕목 자체를 인성 함양 역량으로 설정하는 측면보다는 인성 덕목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뒷받침해 주는 기본 배경 및 원리(예: '지혜' 덕목 → '자기이해' 등)를 직접적인 인성 함양 역량으로 설정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4,9]. 이에 대한 예로서 고려될 수 있는 인성 함양 역량은 '자기이해 인성역량', '타인이해 인성역량', '공익이해 인성역량', '의사소통 인성역량', '갈등관리(문제해결) 인성역량', '직업윤리 인성역량', '행복한 미래 설계 인성역량', '인문학적 인성역량', '기타 인성역량'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런 인성 함양 역량은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에 의해 구성된 만큼 각 대학별로 상대적인 결과로 역시 구축될 수 있다[7,16,17]. 그리고 이런 인성 함양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습 대상이 정규 교과의 수업 내용을 통해 함양하면서 그 함양 정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절차를 일관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성 함양 역량은 어느 한 시점이나 상황에서 크게 성취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통합 양식체계(예: '단일 융합체계', '다중 융합체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통해 수시 간헐적으로 여러 차례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앞의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인과관계적 맥락에 의해 충실하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상호간 맵핑될 수 있는 인성 함양 역량이 명확히 탐색될 수 있다. 종합하면, 인성 함양 역량은 인성교육의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의 가치를 성과 중심의 입장에서 판단 가능케 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겠다[13].

아울러, 인성 함양 역량은 인성교육 교과 수업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뿐 아니라 교과 수업 자체의 내용요소를 기반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각 인성 함양 역량별 융합체계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6,8]. 예를 들면, 위에서 인성 함양 역량으로 제시된 '자기이해 인성역량'은 내용적 기반의 인과관계 맥락상 다른 인성 함양 역량(예: '공익이해 인성역량', '의사소통 인성역량' 등)과 융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 대상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맵핑된 인성 함양 역량 한 가지 뿐 아니라 다른 인성 함양 역량을 암묵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13]. 이런 측면은 학습 대상이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의한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인성 함양 역량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성 함양 역량을 균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점으로 다시 제고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인성 함양 역량 간의 유기적 범주화를 통해 어느 대학에서나 공통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광의의 인성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있어 내용적인 구성 뿐 아니라 구성 내용을 역량기반의 관점으로 상호 연결시키는 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5 사후 연계학습 관리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의해 학습 대상이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최종 경험하는 부분은 일회적인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일회적인 경향의 절차로 간주된다면, 그 융합체계의 가치를 비롯한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제한점을 수반한다[8].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 대상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후에 연계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적 기반을 탐색할 수 있는 양식체계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다[3,17].

이런 사후 연계학습에 대한 제반 사항은 앞서 본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 양식체계 구성 절차를 비롯한 인성 함양 역량 구축 및 유기적 범주화의 절차에서 특별히 직접적이거나 잠정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학습 대상의 입장에서 인성교육의 제반 내용을 자기 주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데 주된 가치가 있다[1-10]. 이에, 학습 대상이 현재 경험하는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 기반을 놓고 사후에 연계 가능한 교과의 핵심 내용요소와 비교과 영역 및 실천 소재, 인성 함양 역량을 융합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후 연계학습 관리가 현실성을 크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및 효과성 차원에서 '인성교육 인증제'의 학사제도와 병행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인성교육 교과-비교과의 범주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교과(예: 비(非)인성 영역 교과, 전공교과 등)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사후 연계학습의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방안 역시 활발히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3.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구성조건을 기초연구 차원에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서 탐색된 제반 결과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후속과제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 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대학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의 점검

일선 대학 현장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실제 개발 및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점검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 인성교육의 교육과정 기반은 교과를 비롯한 비교과 차원에서 점검될 수 있으며[1], 대부분 교과는 공통교양 교육과정 안에 '인성 영역'을 구축하여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5][11-14][17]. 이런 일례는 대학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위 토대를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나 반영해야 할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 등의 차원에서 판단해 볼 경우에는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대한 기반이나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교과목이 공통교양 단위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학습 대상에게 제공된 교육 내용이나 이수시간 등이 양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나아가 인성교육의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에 의거하여 인성교육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기보다는 대학에서 기존의 구도부터 거듭 운영해 온 관련 교과목을 인성교육의 교과 범주로 반영한 부분으로 인해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6,8,9-12,17]. 따라서 각 대학에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를 실제 개발 및 이행하기 위해 교과와 비교과를 개설하는 표면적인 형태의 노력도 시행해야겠지만, 이와 함께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반을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 구축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인성교육의 전문화된 관점을 얼마나 충실하고 타당하게 실제 포함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2-4,15]. 이 일환으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인성 함양과 직결되는 몇몇 덕목을 표면적으로 포함하는 여부에만 주된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포함된 여러 지식 및 기술이 인성교육의 학문적 배경 및 맥락인 교육학의 세부 지식 및 기술과 상호간에 연계적인 논리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에 더욱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단적인 보기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있어 학습 대상이 교육학적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인성 함양의 관점에서 인지 및 습득한 이후 세부적이고 심화·발전된 인성 함양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프로세스가 대학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의 점검 시스템에서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하겠다[4,12,14].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차원에서 인성교육 교과 수업의 내용 기반에 있어 교육학적 세부 전공별(예: 교육철학·역사, 교육심리, 교육과정 등) 이론 및 실제와 얼마나 상호 연계 및 응용되고 있는지 역시 점검 시스템의 주된 요소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이 교육학 분야의 일환인 만큼 교육학적 제반 내용은 인성

교육 교과가 비교과에 대해 부분적인 내용(content)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context)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런 기능 역시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 관점에서 대학 인성교육 교육과정의 기반을 점검할 수 있는 주요 토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후속적으로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 교육학에 기반을 둘 경우와 다른 분야(예: 종교학, 철학 등)에 기반에 둘 경우를 상호간 비교 분석하여 교육학적 관점에 의한 교과의 내용적 기반 마련이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긴밀하게 미치는 영향 정도와 구성 가능한 내용요소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에 있어 교과 차원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은 교과에 기반하고 상호 융합된 차원에서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실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 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 기반은 학습 대상이 대학에서 구축한 현행의 다양한 실천 소재의 비교과 프로그램 유형을 인성교육 관점에서 응용 및 발전, 보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된 성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14][16]. 그리고 이런 관점을 통해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에 대한 활용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포함된 광의적이고 미시적인 여러 구성요소들이 인성교육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요 배경과 원리, 연계 가능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 적극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적으로,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 관점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의 기반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요소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본 연구가 앞서 큰 범주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요소들(예: 비교과 기초교육으로써의 인성교육 정규 교과 내용적 기반 마련 등)은 주된 방안이 될 것이다.

3.2 인성교육 학사운영제도 체계화 마련

앞서 고찰한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에서 인성교육 관련 학사운영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성교육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는 차원을 비롯하여 정규 교과목이 비교과와 연계될 수 있는 적용방안을 학사운영제도의 범주에서 구체화시켜야만 결과적으로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1,12,16,17]. 그리고 앞서 첫 번째로 논의한 '대학 인성교육 교육과정 기반의 점검' 사안 역시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학사운영제도를 통해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대학에서는 인성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 전담 위원회(예: CMS 등)를 마련하여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전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학사운영제도의 체계화와 관련해 실제 고려되어야 할 방안요소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질을 점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질 관리 위원회가 학사운영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적인 보기로, 교육과정 질 관리 위원회에 교육학적 세부 전공별 전문 지식을 활발히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포함된 요소가 교육학적 관점에 의해 얼마나 구체화되고 타당한 학습 이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가 해당 교과목 및 프로그램의 차원에서만 활용 가치와 의의를 갖기보다는 대학교육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6]. 종합적으로, 인성교육 교과-비교과 간 융합체계 개발 및 실행에 있어 학사운영제도가 행정적인 범주라 할지라도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적 기반이 교과 자체 뿐 아니라 사후 비교과와의 융합을 결정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인성교육 교과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적절성과 질적 개선 측면을 모색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속적으로 위 부분에 대해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순차 모색하는 것이 인성교육 학사운영제도에 대한 체계화에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의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시작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요소들은 사후적인 적용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 J. Choi & Y. J. Kim. (2016).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iculum System in Gyeo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Gyeongbuk Gyeongju: Eu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2] K. N. Hong. (2018). Character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507-528.

[3] B. J. Cha. (2015).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Personality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University and Opinions on Their Activations: Focusing on the Open Curricula related to the Personality Development in S University. *The Journal of Daedong Philosophy, 72*, 23-45.

[4] H. J. Ji. (2013). An Inquiry into the Awareness on the Liberal and Character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5)*, 433-466.

[5] J. B. Yu. (2014). The Cultivation of Humanity in a Secular University. *Faith and Learning, 19(3)*, 85-106.

[6] Y. K. No. (2016). The Effect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a College Liberal Arts Course. *Th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37(2)*, 115-138.

[7] J. H. Lee. (2016).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2)*, 219-250.

[8] S. N. Son. (2014). A Didactical Reflection 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11-41.

[9] Y. S. Jun & H. H. An. (2017). Methods and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Linked with Community.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3)*, 185-215.

[10] C. W. Chung. (2015).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Personality Education*. Gyeonggi: Kyoyookbook.

[11] H. S. Lee & J. H. Jun. (2017). A Research on Operational Status of Non-Curriculum Program of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375-396.

[12] E. S. Park. (2018). A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Program Focusing 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Society 21, 9(2)*, 127-136.

[13] H. Y. Kim. (2016). A Study on Direction for Practical Service Activities as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2(2)*, 10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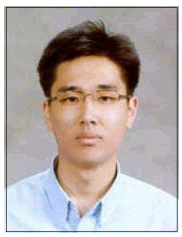
[14] J. H. Shin. (2016). *The Theory and Practice of Humanity Education*. Gyeonggi: Kyoyookbook.

[15] Y. J. Kim & K. S. Kang. (2018a). A Study on a Plan to Create a Basis for a Curricular Upgrade witha View to Activating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3)*, 411-428.

[16] Y. J. Kim & K. S. Kang. (2018b). A Plan to Operate the Online General Education Subjects for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Society 21, 9(4)*, 109-119.

[17]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System at University Level. *Culture and Convergence, 40(4)*, 117-148.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특수교육학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박사

- 관심분야 :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 E-Mail : helperman20@hanmail.net

강 경 숙(Kang, Kyung Sook)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 관심분야 : 통합교육, 융복합교육
- E-Mail : grace86@wku.ac.kr